

“하느님께 드리는 초대장”

“신부님, 신부님은 참 좋으시겠어요. 세상 걱정 없이 하느님만 바라보며 살고 계시니까요! 부부간에 갈등도 없고 자식 걱정 안 하니 얼마나 행복하세요?” 그러면 저는 대답합니다. “물론 행복합니다만, 그것이 혼자이기 때문은 아니에요. 혼자 사는 것도 쉽지는 않아요!” 라고….

과연 세상에 걱정도 근심도 어려움도 없는 삶이 있을까요? 걱정과 근심은 미래를 알 수 없는 우리의 삶에서, 어려움은 미약한 인간의 능력에서 비롯하는 필연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걱정도 근심도 없고 어려움도 없는 삶이란 없습니다. 단지 그 걱정과 어려움이 조금씩 다를 뿐이지요.

제가 첫 본당에서 생활할 때에는 첫 단추를 잘 꿰어야 한다는 부담감, 자신의 부족함을 알고 있기에 더 노력해야 한다는 압박감, 많은 단체 모임들과 회의 그리고 행사들로 인해 쉽게 지치곤 했습니다. 때로는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한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을 통해서 사제는 진정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느끼며 삶의 중심을 ‘기도’에 두고자 노력했습니다. 면담을 하거나 회합을 들어가는 등, 크고 작은 모든 일에 있어 주님께 기도하는 것으로 시작하고, 주님께서 내 손을 잡고 계신다는 마음으로 임했으며, 그 결과를 주님께 맡겨 드리고자 했습니다.

놀랍게도 그때부터 너무나 어렵고 힘들었던 상황에서 한 줄기 빛이 보이고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길이 열렸습니다. 그때에 저는 주님의 놀라운 신비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마치 태초의 혼돈에서 땅과 물을 가르듯이 성부 하느님께서 는 어려운 상황을 정리하고 새로운 빛을 창조해 주셨고, 구원자 예수님께서는 근심과 걱정의 죽음에서 기쁨과 감사의 부활로 나를 구원하셨으며, 성령께서는 당신의 섭리로 저를 이끌어 주신 것이었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사랑과 협력으로 인류를 창조하고, 이끌고,

구원하였던 바로 그 신비가 제 삶 한가운데에서 새롭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바로 이 삼위일체의 신비가 저를 행복하게 합니다. 걱정과 근심이 없어서, 어려움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삼위일체이신 하느님의 사랑과 구원의 신비가 저와 함께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걱정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행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삼위일체의 신비에서 샘솟는 사랑으로 우리의 삶은 새로이 창조되고 구원을 얻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삼위일체의 신비, 사랑과 구원의 신비가 우리 안에서 새롭게 이루어지도록 그분을 초대해야 합니다. 크고 작은 일, 좋고 나쁜 일 뿐만 아니라 내 삶의 중심에 그분을 초대하는 것입니다. 성부 하느님과 함께 시작하고, 임마누엘 예수님과 함께 최선을 다하며, 성령께 맡겨드리 는 노력이 그것입니다. 우리의 초대에 하느님께 서는 기꺼이 함께 하시어 우리의 삶 한 가운데에서 새로운 창조와 구원을 이루실 것입니다.

글 이규현(가톨릭로보로메오) 신부

“아버지께서 가지고 계신 것은 모두 나의 것이다.” (요한 16,15)

한 어린이가 시험을 쳤습니다. 문제는 “곤충을 세 부분으로 나누면? (), (), ()”라는 문제였습니다. 정답은 (머리), (몸통), (다리)입니다. 그런데 그 어린이는 어떻게 답을 적었을까요? (죽)(는)(다)라고 답을 적었습니다. 참 기발하고 귀여운 생각이지요? 하지만 ‘죽는다’라는 말도 맞는 말이긴 합니다. 곤충을 세 부분으로 나누면 죽어버리지요. 아마도 그 어린이에게는 ‘곤충을 나눈다’라는 말이 그냥 이론적인 선긋기가 아니라 실제로 곤충을 세 부분으로 떼어 나누는 것으로 이해되었던 모양입니다. 평소에 나누기를 참 잘 하는 어린이였나 봅니다.

오늘은 삼위일체대축일입니다. 교회는 주님승천대축일과 성령강림대축일을 지낸 그 다음 주일을 삼위일체대축일로 지냅니다. 성자의 부활과 승천, 그리고 성령강림을 모두 지낸 다음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께서 같은 본성을 가지신 한 하느님이심을 기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삼위일체 신비는 인간이 이해하기에는 참으로 어려운 신비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비슷하게라도 그 신비를 이해하기 위해 여러 가지 예를 들기도 합니다. 삼각자, 선풍기 날개, 세 잎 클로버, 전기, 햇빛, 나무, 사랑의 의미, 심지어 화투장의 청단, 홍단, 초단까지……. 하지만 어떤 예를 들더라도 삼위일체 신비를 제대로 설명해 낼 수는 없습니다.

“삼위일체”, 네 글자 밖에 안 되는 짧디 짧은 한마디 말인데, 그 말 중에 도대체 어떤 말이 그토록 이해하기 어려운 것일까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사람들은 “삼위”라는 말보다 “일체”라는 말을 이해하기 어려워하는 것 같습니다. “하느님은 성부, 성자, 성령 곧 ‘삼위’이시다”라는 말은 금방 알아듣지만, 그 삼위의 하느님이 “한 분” 이시다는 말을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느님이 세 위격이라는 것은 그래도 이해가 되는데, 그 세 위격의 하느님이 어떻게 한 분일 수가 있느냐는 것이지요. “삼위”가 어려운 것이 아니라 “일체”가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렇게 인간이 삼위일체의 신비를 알아듣기 어려워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물론 그 신비는 무한하신 하느님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인간의 머리로는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하지만 거기에는 인간이 지닌 습관도 이유가 됩니다. 곧, 나누기는 잘하지만 일치하기는 어려워하는 습관입니다.

사실 사람들은 나누기는 정말 잘합니다. 사상과 이념, 이해관계와 각자의 목적에 따라 사람들을 이래저래 나누고, 갖가지 생명도 마음대로 부수어 버리고, 끊어질 수 없는 혼인의 끈도 너무 쉽게 잘라버리고, 산도 바다도 강도 웅텅웅텅 갈라 나누어 버리고…. 하지만 나누기는 그렇게 도 잘 하면서 일치하는 데는 실력이 많이 부족합니다. 서로 이해하고, 존중하고, 그래서 서로 간에 있는 벽들을 없애가며 화합하고 친교를 나누는 것은 참 어려워합니다. 이렇게 인간은 나누기는 잘 하기 때문에 “삼위이시다”라는 말은 금방 알아듣지만, 일치하는 것은 잘 못하기 때문에 “한분이시다”라는 말은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아닐까요?

이런 의미에서 삼위일체라는 말을 잘 이해하고 또 삼위일체이신 하느님과 하나 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우리 신앙들에게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바로 일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나누기 보다는 더하기를 잘 해야 하는 것이지요.

친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일치의 삶을 잘 살아갈 때 우리가 삼위일체의 신비를 체험하여 그 의미도 잘 알 수가 있게 되고, 또 직접 그 신비에 참여할 수 있는 축복도 받게 될 것입니다. 삼위일체이신 하느님, 곧 “사랑을 베푸시는 하느님 아버지와 은총을 내리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일치를 이루시는 성령”께서 항상 교우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많은 축복 내려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글 천주교 화령성당 김종길 제오르지오 신부

성모성월 기도

○ 내 영혼이 주님을 찬송하며
나를 구하신 하느님께 내 마음 기뻐 뛰노나니
당신 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도.
● 이제로부터 과연 만세가 나를 복되다 일컬으리니 능하신 분이 큰일을 내게 하셨음이요 그 이름은
“거룩하신 분” 이시로다.
○ 그 인자하심은 세세 대대로
당신을 두리는 이들에게 미치시리라.
● 당신 팔의 큰 힘을 떨쳐 보이시어
마음이 교만한 자들을 흠으셨도다.
○ 권세 있는 자를 자리에서 내치시고
미천한 이를 끌어올리셨도다.
● 주리는 이를 은혜로 채워 주시고
부요한 자를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 자비하심을 아니 잊으시어
당신 중 이스라엘을 도우셨으니
● 이미 아브라함과 그 후손을 위하여
영원히 우리 조상들에게 언약하신 바로다.
○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 기도합시다.
저희를 하느님 아버지께 이끄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님,
주님의 어머니 동정 마리아를
저희 어머니가 되게 하시고
저희의 전구자로 세우셨나이다.
비오니, 성모 마리아의 전구를 들으시어
저희가 주님께 간구하는 모든 은혜를 받아
누리게 하소서. ◎아멘.

본 당 소 식

◎ 6월 사목회의 안내

▶ 오늘 미사 후 교육관에서 있습니다. 사목 위원과 구역장 전원 필히 참석을 바랍니다.
(단체장 제외)

◎ 묵주기도 안내

오는 6월 첫 주일 부터 다시 시작하기로 했던 십자가의 길을 그리스도의 모친이시고 교회의 어머니이신 성모님과 함께 청원하는 묵주기도 (영광의 신비)로 바꾸어 새롭게 기도지향 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모든 신자들께서는 필히 묵주를 지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간은 오후 4시 15분 시작되며 시간엄수 바랍니다.

선도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6월 6일- 총무 한택중 막시모

6월 13일- 재정분과장 백옥현 안셀모

6월 20일- 전례신심분과장 최희수 카타리나

6월 27일- 선교분과장 박재영 바오로

◎ 본당 웹사이트 안내

www.kwpaul.com

www.kwpaul.com/youth

그 동안 운영하던 굿뉴스 사이트를 6월부터 본당 웹사이트로 옮겼습니다. 본당 웹사이트에 아이디어가 필요하신 교우나 등록시 도움이 필요하신 교우는 사목 총무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바뇨의 성모 기도 모임 안내

▶일 시 ; 6월 4일(금) 오후 7시

▶장 소 : 이 동기 형제택

▶기도가 필요하신 교우는 신청하여 주시고

정기적인 참석자가 아니라도 환영합니다.

◎ 교육관/사제관 관리 안내

▶구역별 월 2회 잔디 관리 및 청소 담당

6월 : 브랜포드

7월 : 캄브리지

◎ 안내/헌금 담당

▶6월 : 캄브리지 구역

▶7월 : 브랜포드 구역

각 담당 구역에서는 2인 1조로 미사 30분 전에 성당에 도착하여 미사 준비와 마감을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 5월 30일 봉헌금 내역
주일헌금 : \$ 565.00
교 무 금 : \$
감사헌금 : \$
성전건립 : \$
성모님동산 (누계):금주\$ 5 (\$5835.00)
합 계 : 565.00

본당발전을 위한 기도

○ 사랑이신 주님, 저희가 주보성인인 성정하상 바오로의 모범을 본받아 열심 한 신앙인으로 거듭나게 하소서.

● 주님께 받은 모든 은혜에 깊이 감사드리며, 주님의 보살핌 속에 하나 되어 주님께 더욱 가까이 다가가는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 또한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사랑의 계명을 가정과 이웃, 지역에서 실천하게 하소서.

● 말과 행동으로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앞장서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소서.

○본당 공동체가 활성화되어 주님의 기쁜 소식을 널리 전하게 하소서.

◎ 주님께서 바라시는 대로 “지금 여기에서” 하느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이끌어 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KW한인천주교회 St. Paul Chung Parish

516 Franklin St. N., Kitchener
Ontario, Canada. N2A 1Z4

☎ 519 208 1913

FAX 519 954 1913

www.kwpaul.com

주임 신부

사목회장 장명길 바오로 ☎ 519 758 9526

사무봉사자 이상희 세라피아 ☎ 519 894 3533

주일 미사 주일 오후 5시
평일 미사

유아 세례 1주일 전 신청
병자 성사 상시
혼인 성사 10개월 전 신청
예비자교리 10개월, 통신교리는 1개월 보충
고해성사 미사 전 20분
축복식(차량,주택,가게) 1주일 전 신청

2010-22호

2010. 5. 30.

삼위일체 대축일

해설 노 재현 차주 해설 이 정숙

성 가

입 당 (81) 영광의 주 성삼위
봉 헌 (512) 주여 우리는 지금
성 체 (162) 성체 성혈 그 신비
되 장 (80) 거룩한 성심이며

화 답 송 ◎ 주님, 저희 주님, 온 땅에
당신 이름, 이 얼마나 크시옵니까!

복음환호송 ◎ 알렐루야,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으며 장차
오실 하느님, 성부 성자 성령께 영광
있으소서◎

감사송 <삼위일체의 신비>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느님,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요 구원의 길이옵니다.
아버지께서는 아드님과 성령과 함께 한
하느님이시며 한 주님이시나, 한 위격으
로 하나가 아니시고 한 본체로 삼위일체
이시나이다. 주님의 계시로 저희가 믿는
주님의 영광은 아드님께도 성령께도
다름이 없나이다. 그러므로 위격으로는
각각이시요, 본성으로는 하나이시며
위엄으로는 같으심을 흠송하오며, 영원
하신 참하느님을 믿어 고백하나이다.
그러므로 모든 천사와 대천사와 케루빔
과 세라핌도 주님을 끊임없이 찬송하며
소리 맞춰 노래하나이다.

◎ 거룩하시도다!

독 서

5월 30일 박영진 최희수

6월 6일 이동기 전경숙

봉 헌

5월 30일 이동기 이정숙

6월 6일 박영진 최희수

복 사

5월 30일 최예슬 강수현

6월 6일 구하람 노승범